

일본연구소 제 19회 연구집담회

일시: 2010.10.27(수). 오후 3:00~5:00

장소: 국제대학원 구관(140동) 104호

발표자: 남기정(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HK교수)

제목: 베트남 ‘반전탈주병’과 일본의 시민운동

<발표 개요>

1. 배경

한일관계에 관한 이제까지의 연구 일단락하고 한국전쟁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문제 연구. 베트남전쟁 연구하고자 하는 포부가짐, 진도는 더디지만 라이프워크로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걸프전쟁, 이라크 전쟁 네 개의 전쟁으로 전후 일본의 전쟁과 평화에 대해 연구하고자 함. 따라서 베트남전쟁은 그 2단계에 해당.

최근에 베헤이렌과 자테쿠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증언록과 인터뷰한 내용들로 사건을 재구성한 서적이나 회고록들은 몇 권 있지만 분석적인 연구는 이제 막 시작된 단계이다

2. JATEC(J메무 Technical Committee for Assistance to[aid/help] US Anti-War Deserters[soldiers/gis]

탈주병 아니고 ‘반전탈주병’이라는 것이 초점. 반전(탈주)미군병사 원조 일본기술위원회 명칭에 왜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확실치 않음. 국경을 넘긴다는 기술적인 실행상의 의미가 아닌가 짐작.

베헤이렌=반전운동하는 문화인들 단체, 베헤이렌의 운동결과 탈주병들이 생기자 이를 감당하고자 독립된 그룹은 베헤이렌의 구리하라 유키오가 주도해서 모임 결성. 68년 봄에 가시적 활동 시작.

3. intrepid 4 사건

1967년 10월 26일 신주쿠 후게츠도(風月堂)이라는 재즈바에 인트피드호라는 항모에서 이탈한 4명의 미해군병사가 그 앞을 지나가던 야마다겐지에게 도움요청

야마다가 베헤이렌에 연락, 인트레피드호는 기출항한 상황. 자대복귀 불가능한 상황이었음. 일본에 망명하고자 했으나 일본은 망명 허락 안하는 나라였음. 67년 11월 11일 요코하마에서 바이칼호라는 소련의 상선으로 탈출. 67년 11월 13일에 오다 등 네 명이 기자회견하면서 베헤이렌에서 촬영한 20여일의 기록영화 상황. 네 명의 반전성명 발표. 이들이 단순한 탈주병이 아니라 반전의 의사 확실함 보여줌. 이들은 소련을 거쳐 허가받아서 스웨덴에 입국.

베헤이렌에서는 일본인의 미군탈주병 원조의 적법성에 대해 고려. 스나미 슌스케변호사의 법령해석에 따르면 위 4명이 법령의 바깥에 있는 이들이다. 따라서 이들을 지원하는 행동은

미군지위협정이라고 하는 일본의 법령에 어떤 위배도 아니다.

4. 탈주와 베헤이렌.

자테크 이전에 인트레피드 4가 있었고 또 그 이전에도 공공연하게 탈주하지 못한 그런 이들이 있었다. 그 중에 주목할 만한 2사람이 있는데 이들은 코리언. 김동희와 김진수. 김동희는 1965년 7월 한국육군을 탈영, 8월 일본으로 밀입국, 체로, 일본망명을 희망했으나 월북. 현재 소재 불명. 김진수는 스웨덴으로 망명.

인트레피드 사건 이후 여기저기 숨어있던 이들이 베헤이렌의 존재를 알고 속속 모여들. 베헤이렌 내에서 중국으로 보내자는 의견이 있었음. 김진수는 중국으로 출항했다가 실패했고, 그래서 잇따른 탈주병 5명과 함께 소련으로 가는 홋카이도 경유루트로 탈주. KGB가 비밀리에 공작. 그래서 베헤이렌은 KGB의 자금으로 운영되었다는 빌미가 되기도 했음.

1968년에 3명이 모스크바로 탈출했는데 그 중에서 랜디 코츠라는 이가 미대사관으로 출두. 자테크의 은닉루트가 미국측에 다 알려져 자테크의 활동에 어려워짐.

대만, 한국, 중남미뿐만 아니라 일본인 미군병사도 탈주. 8건 정도인데 이 중에서 4명은 일본으로 복귀하고 나머지는 소재 불명. 베헤이렌이 여기도 개입.

5. 방침 전환

68년 10월 스파이의 잠입으로 탈주가 실패한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 일본에서 은닉시켰다가 해외로 도피시킨다는 제1시 자테크 운동의 방침에 전환 요구가 베헤이렌 내에서 일어나기 시작함. 아무나 탈주시켜줄 일이 아니다. 문제아나 뚜렷한 목적의식 없는 이들까지 도와줄 필요가 있느냐는 내무적 문제제기.

‘진정한 의미의 탈주’에 대한 고민과 규정 등장. “탈주하지 말고 군대안에서 싸워라, 우리도 지원한다”, 탈주병에 대해 복귀해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설득하는 작업 진행. 무허가부대이탈과 탈주는 내용이 다르다. 전자는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형벌 받지는 않으니까 감수하고 부대로 복귀할 것을 권유 .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탈주를 고집한 이들이 2명 있었음. 이들을 도우기 위해서 제 2의 자테크가 위법활동도 불사했음. 훗날 여권을 위조해서 위 두사람을 탈출시켜줌 일본공항에서 프랑스 공항으로 탈출. 때문에 오랫동안 비밀에 부쳐왔음.

*모범생 탈주병= 테리 위트모어. 반전탈주병의 상징. 현재도 베헤이렌이었던 이들과 연락유지, 반전의식과 지속적 반전활동.

6. 탈주병 지원운동에 대한 연구의 의의

17명이 2년 남짓 움직이는 과정에서 한 번도 일본 안에서 밀고자가 없이 이루어졌다.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옮겨다녀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이들이 연루되었는데 어떻게 비밀이 유지되는 시민운동이 가능했는가의 문제.(당시 일본사회에서는 시민사회가 아직 존재)

내부문제로 폭발하지 않고 운동이 끝날 수 있었는가에 대한 문제.

반전평화운동과 국가 부정의 논리의 문제.

당시 일본 사회에 대한 정신분석학의 차원에서의 새로운 접근.

걸프전쟁이나 이라크 전쟁에서 오키나와는 여전히 중요한 출격기지였는데 그 때는 왜 탈주병 문제가 등장하지 않았는가.

탈주병이 넘은 것은 국경인가, 국가인가.

탈주병이 돌아간 곳은 조국인가, 고향인가. 국가의 행위에 의해서만 탈주병에게는 고향이 주어지는가의 문제.

탈주병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규정할까.

디아스포라? 탈출? 유목? 이탈? 탈주?

진정한 조국은 전쟁, 빈곤, 차별이 없는 곳이다(서경석의 디아스포라적 국가관)

이것은 탈주의 차원에서도 도달할 수 있는 국가관이 아닌가.

<질의 토론>

1.탈주병과 월경의 문제로 집중을 해가는 것이 어떤가. 시민운동은 또 다른 차원이니까

2.당사자들의 입장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의 문제. 탈주냐, 무단부대이탈이냐의 문제나, 이념의 문제, 자테크 내에서의 사람들의 논의, 1기와 2기의 다른 규정과 로직들이 사건전개 속에서 설명이 되면 사건이 좀 더 밀착되게 전달될 것이다.

3.일개 시민단체가 사람을 외국으로 빼돌린다는 것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60년대 말의 상황, 적군파의 비행기납치나 팔레스타인 개입, 혁명 수출 등의 분위기 속에서 상당히 업된 과격한 운동이 아닌가. 그 시대의 분위기.

->시민의 징검다리를 넘어서 국경을 넘은 것인데. 시민이 국경 넘기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60년대 운동이 다운되어 가던 상황에서 치고 나온 것이 베헤이렌이었다. 오다 마코토는 정치적 입장보다는 대중적인 친화성 때문에 대표가 된 것이고. 정치적 과격성보다는 주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나온 운동. 이 운동에 대해서 일본의 사회당이나 공산당이 어떤 입장을 가져왔는지는 미확인상태지만 아마도 공산당은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4. 탈주병들 자체가 반전의식이 확실했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디아스포라는 가리지 않는데, 탈주병의 경우는 가치있는 쪽과 아닌 쪽을 구분하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5. 탈주병들이 정주한 곳에서 어떤 지위와 자격을 부여받았는지, 법적인 지위 문제를 명확히 해야 이들이 귀국해서의 지위에 대해서도 규명이 가능함.

6. 위 사건들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스파이도 집어넣고 한 것을 보면 정보가 있었을 것인데,

->미국과 한국의 외교문서에는 문건상의 타이틀로는 없음.

7. 탈주병 지원운동에 대한 사회적인 비난

-> 의견 교차가 아니라 단지 비난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미디어는 차가운 논조가 있었고, 양심, 인종 등의 문제가 얽혀 있었다.

8. 군대안에서 병사들에게 반전운동과 관련하여 도움이 있을 수 있었는지.

9.포로나 탈주병이 선전전의 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정시기에는 제 3국행으로 가는 것이 가능했던 것. 따라서 탈주의 패턴에 대한 역사적 조명이 유용할 듯

죽음, 투옥, 도망이라는 선택지가 가능한 것은 어느 정도의 민주화가 있어야 가능하다. 특히 투옥의 경우에는.

냉전의 아이러니. 탈주의 물질적 루트가 소련이나 중국 등의 지원이 가능했다. 탈냉전 이후에는 이라크 전쟁이나 걸프 전쟁 등은 제국의 바깥이 없어진 상황이라서 접근해 보면 어떨까. ㄷ